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6월 3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청년 성도가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정의진 -

할렐루야!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영통성전에서 청년 봉사선교회 총무와 초등부 교사로 선교회와 교회학교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교회 집사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교회학교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날부터 초등부 선생님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키워가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성격이 이기적이고 장난이 심해서 부서에서 사고뭉치나 다름없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선생님을 옆에서 방해하는 등 장난이 매우 심했습니다. 절기 행사 같은 때에 간식을 받고도 또 받고 싶어서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을 구기거나 성전에 있는 비품을 망가뜨리는 등 주님의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도 저는 교회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커가면서 오히려 주일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과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한다고 약속하고는 교회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경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 꿀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품어 주시며 반듯하게 자라고 교회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힘써 기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러한 사랑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의 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뿌리고 심고 가꾸어 주신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교회학교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깊이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저를 사랑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의 권유로 주일예배 성가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찬송하는 것이 좋아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가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습하는 가운데 찬송가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전역할 무렵에 저희 집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에 오가는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방황을 하다가 집 근처 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서 보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 면에서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저는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지치고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여 당회장 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던 팬데믹

기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생활이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합금지가 풀리고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예배중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청년봉사선교회의 예배와 모임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신앙생활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제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정할 때 총무 직분을 맡아 선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다는 다짐이 막상 두려움에 가려지고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능력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성경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런 저를 나무라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여호수아 8:1)라는 말씀으로 사명감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는 중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존귀한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회와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 기관과 부서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1단원 :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 (제3과) 성경은 성도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 본문 : 마태복음 5:13-16
- 요절 :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 찬송 : 276장(새찬송가 510장), 358장(새찬송가 552장)

성경은 기록된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소금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듯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마다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사라지고 따사로운 인정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잘 적용함으로 성경을 통하여 받은 그 교훈과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목적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 그리고 성도들의 행동규범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고 말씀하셨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귀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11:4)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르침과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고전 10:31).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생활 원리

(1) 화목케 하는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고후 5:18,19).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과 구역, 교회와 직장을 막론하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다툼이 끝나고 그 대신 사랑과 화해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사량치 않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키 위한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2) 진실된 언행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진실’을 상표로 삼아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한 죄를 범하였어도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욱 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불신자들도 은연 중에 기독교인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또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인들의 이목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진실된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엡 4:21~25).

(3)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낯선 민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복음 사역에 투신한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평신도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몫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과 친지들의 구원을 위한 일차적인 책임이 주어지며,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의 동료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선교에 적극 동참합시다!”

비전 VISION 인터넷과 Mobile을 넘어 AI시대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Global선교 사역 감당

인터넷/스마트폰/온라인 방송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내외 동시예배 지원과 선교 지원

성도들의 영적 성장 도모

기도/물질 후원회원 50,000명 이상 확보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작 지원

교회내 IT Control Tower 역할 수행

전 성전 PC/Network 장비 및 Software 운영 지원



주요업무 Key responsibilities

정보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교회 각종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
- 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방송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스마트폰용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송통신선교회

- 방송통신선교 사역 홍보
- 지성전별 방송통신선교회 운영
- GNTC TV 프로그램 홍보
- 방송통신선교후원회 운영 및 후원자 관리
- 인쇄, 방송, 스마트폰 등 매체별 활용을 통한 전도 사역

GNTC TV

-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관리
- 국내외 선교를 위한 방송 제작 지원

방송통신선교사역에 뜻이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선교 기획
- 개발 (디자인, 프로그램, Ai, 네트워크)
- 방송 (카메라, 음향, 영상편집, 기획 등)
- 후원회 관리

[연락처] 031-443-3757

메일 : gntckorea@gmail.com

방문 : 투르스빌딩 7층 정보통신선교회 (각 성전 방송통신선교회)

